

지역 매아리

부안군보건소, 독감 주의보 발령

부안군보건소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 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이날부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도가 넘는 고열과 근육통 등 심한 몸살 증상,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행기간이며 통상 12월에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함께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현자 군 보건소장은 "9세 이하 영유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대사회, 심장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방문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수제천원 건립 '총력전'

정읍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신축부지 적정후보지 논의

정읍시가 정읍의 소리 수제천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시는 정읍의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자 천상의 소리인 수제천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수제천원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9일 '정읍 수제천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수제천 보존회, 관련 공무원, 연구 용역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수제천원 건립 타당성 분석과 신축부지 적정후보지 선정 등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회에서 용역사 정호국문화재단의 박현용 교수는 ▲기분현황 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수제천원 건립 필요성 및 여건 분석 ▲소수 예산 및 사업집행 계획 수립 ▲사업부지 타당성 분석 등 자세한 사업 설명과 함께 최적의 건립 방안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에 사업부지 선정, 건립 후 주변 공연시설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진섭 시장은 "수제천원이 건립되면 백제가요 정읍사에 뿌리를 둔 수제천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



정읍시가 지난 1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읍 수제천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다"며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정읍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원을 확보해 행정절차(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를 거쳐 2021년까지 수제천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다"며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정읍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원을 확보해 행정절차(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를 거쳐 2021년까지 수제천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18 회계연도 한눈에 보는 정읍시 살림살이' 책자 제작

궁금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던 우리 시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정읍시가 '2018 회계연도 한눈에 보는 정읍시 살림살이' 책자를 제작해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다.

책자에는 시 세입·세출과 재무결산, 자산·부채·수익 현황과 재무제표 주요지표, 타 지자체와 비교현황 등 정보를 담았다. 기존의 결산서는 1천 500여 장의 방대한 분량과 복잡하고 전문적인 회계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시는 2018 회계연도 결산서의 핵심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 용어와 그래프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새로 제작한 것이다.

더불어, 시는 시청 종합민원실과 은행 등 시민 발걸음이 닿는 곳에 책자를 비치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책자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는 책자 제작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운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책자 제작과 배부를 통해 시민들이 우리 시 재정운영 상황과 성과에 더욱 관심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식 개최

고창군이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추진위원장 강형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19일 해리면 체육센터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유기상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조규철 군의장, 고창군의회 차남준 군의원, 김성근 해리면장, 김갑선 해리농협장 등 기관단체장과 강형철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 해리면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해리면의 거점공간인 해리리 일원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해 해리면 중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특히 해리체육센터는 지상1층, 연면적 800㎡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다용도실 및 사무실 등이 마련됐다. 시장 다목적광장 조성(1048㎡), 마을쉼터 조성(4개소) 등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억원이 투자됐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시행해 준공식이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서 강형철 추진위원장이 유기상 고창군수로부터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서울국제식품산업전시회 식초문화도시 첫 선

고창군이 20~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4회 서울 국제식품산업전'에서 고창의 우수 식초제품 홍보관을 운영한다. 지난 11월1일 식초문화도시 선포식 이후 첫 대의 홍보행사다.

도시 소비자들과 국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홍보관은 고창식초의 우수성과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홍보관에선 고창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전통발효식초와 원재료를 대해 설명하고, 식초 가공 및 판

로화대를 위한 유통업체 MD(상품기획자)의 전문 컨설팅도 예정돼 있다. 또 방문 고객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젊은여성층과 어린이를 둔 주부, 국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시음, 시식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식초의 원료가 되는 쌀과 보리를 비롯해 국내 배리류(복분자, 아로니아 등)의 최대생산지로 정평이 나있으며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여기에 복분자주와 막걸리로 대표되는 발효주, 식초분야 최고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귀농인, 퇴직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식초연구회에 모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시회에 참여한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은 복분자 비롯해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원재료가 풍부하고, 게르마늄 온천수로 대표되는 건강한 물, 여기에 발효되기에 딱 좋은 연중 온화한 기온까지 명품식초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고창이 일본 가고시마의 흑초마을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식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국민에게 고창식초의 장점을 알리고, 식초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 공원 구역 조정 논의

정읍시가 지난 19일 유성업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해 내장산국립공원 상생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는 유 의원과 시 관계자, 중앙부처인 환경부 내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부에서 내년도까지 추진 중인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사업과 장성군에서 주장하는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 건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내장산국립공원 공원 구역 중 보호할 생태적 가치가 낮아지고, 지역발전의 핵심지역으로 이용 가치가 높아진 지역에 대한 공원 구역 해제 검토를 요청했다.

더불어, 공원 구역 해제 이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생태적 발전 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다.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은 국립공원 존재 근본 목적인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아무런 관련 없이 일부 지역의 이해관계만을 표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장산국립공원명칭변경이 지역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명칭변경은 지역민에게도, 국민에게도, 내장산국립공원에도 도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내장산국립공원의 영구적 보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정책을 모색해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 군민디자인단 '부안청년위드업'이 지난 19일 부안노인여성회관에서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블로그 마케팅 무료교육을 진행했다.

지금부터 1인 크리에이터 시대!

부안군민디자인단, 블로그 마케팅 무료 교육 실시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 군민디자인단 부안청년위드업은 지난 19일 부안노인여성회관에서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블로그 마케팅 무료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50여명의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디자인단 전문가로 참여한 중인 코퍼디자인 박교식 대표의 재능기부 강연과 부안청년들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양한 상품 전시홍보, 부안군 청년행복 정책 제안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사전접수 없이 선착순 참여로 이뤄져 많은 군민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일찍부터 교육장을 찾았으며 컴퓨터가 모자라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거나 서서 교육을 받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군민디자인단 토론 중 제안됐

던 정책들을 참여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먼저 추진되기 위한 정책은 청년창업자 온·오프라인 상품 마케팅 스킬교육과 청년기금 조성을 통한 일자리보전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김모씨는 "교육이 매우 유익했고 이런 교육 받을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오니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1인 크리에이터 시대에 맞는 심화교육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군민들이 뜨겁게 호응한 이번 교육을 보면서 부안의 희망을 봤다"며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이 관련 부서를 거쳐 실현가능성 있는 제안은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TEL : 063-684-9900
www.gangsanwine.com